



1 문화관광부의 리셉션 2 현대건설 이동원 부장이 광주 문화 중심 도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투자 설명회. 3 주택협회의 이방주 회장. 4 문광부 관광 레저 도시추진기획단의 김대관 단장. 5 문광부의 박광무 정책관리 실장. 6 광주시 동구청 손영주 도시국장. 7 Kotra의 서비스 사업유치팀 김성환 차장.

MIPIM 2007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에디터 | 정명호 · 사진 | 김우희

MIPIM 2007에서는 해외 도시들과 업체들만 투자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주문화중심도시, 현대건설, 쿠즈코(CUZCO) 등이 ‘따로 또 같이’ 전시 부스를 만들어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환균 청장은 “외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절감했다”며 “우리 정부도 외자 유치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레저 도시와 광주 문화 중심 도시로 투자자 유치에 나선 문화관광부는 50여 명의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화관광부의 이근영 마케팅 팀장은 “지난해 우연히 길을 지나다 들르는 참가자가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문화관광부 부스에 찾아와 각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늘었다”며 “광주 문화 중심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뿐 아니라, MIPIM을 통해 국가적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김대관 단장은 “MIPIM Asia

행사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홍콩에서 열린 MIPIM Asia에는 2000여 명의 세계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 단장은 “MIPIM을 유치하면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뿐 아니라 관광 레저 도시를 외국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STR의 김관영 대표는 “글로벌 경제로 부동산 투자도 국경이 무의미해졌다”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PIM 2007의 마지막 날, 한국 전시관을 둘러보던 한 네덜란드 투자자가 넋지시 물었다. “이미 당신의 나라에는 훌륭한 투자사와 건설사가 많은데, 왜 먼 곳까지 와서 힘들여 투자자 유치에 나서시는 것인가?”라고. ‘서울과 아파트에만 집중하는 한국 투자사’에 대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답을 마쳤지만, 웬지 입 안이 씹쓸해지고 말았다. 도시와 건설 문화를 동시에 생각하는 글로벌한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MIPIM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리라. ☺



3

4

5

6

7